**요1203 Note**

**◆** **각 복음서의 향유(연고) 바르는 사건들 / 마2607,막1403, 눅0738, 요1203**

▶마2606. 한데, 예수께서 베다니에서,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에,

마2607. 거기에서 매우 값비싼 연고(뮈론:몰약,향유,고약,연고)의 알라바스터 석고상자(알라바스트론:석고상자,향료병,옥합)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부인이 그분께로 와서, 그분께서 음식자리에 앉아 계시던 때에, 그것을 그분의 머리 위에 부으니라,

▶막1403. 그리고 베다니에서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셔서, 그분께서 음식 자리에 앉으셨을 때에, 매우 값비싼 (피스티코스:믿을 만한,성실한,순수한) 감송향(甘松香)(나르도스:나드,감송향) 연고(뮈론:몰약,향유,고약,연고)의 알라바스터 석고상자(알라바스트론:석고상자,향료병,옥합)를 가지고, 어떤 부인이 오니라. 그리고 그녀가 상자를 부수고, 그것을 그분의 머리 위에 부으니라.

▶눅0736.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의 하나가 그분께서 그와 함께 식사하기를 그분께 원하니라. 이에 그분께서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, 식사 자리에 앉으시니라.

눅0737. 그리고 보라, 죄인이던 그 성(城)의 어떤 부인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자리에 앉으신 것을 알고, 그녀가 연고가 담긴 알라바스터 석고상자(알라바스트론:석고상자,향료병,옥합)를 가져오니라.

눅0738. 그리고 울면서 그분의 뒤에서 그분의 발치에 서서,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고, 그녀 머리의 머리카락으로 발들을 닦아내고, 그분의 발에 입맞추고, 연고(뮈론:몰약,향유,고약,연고)로써 발들에 기름 바르니라.

요1202. 거기에서 그들이 그분께 저녁을 차려 드리니라, 그리고 마르다가 섬겼느니라, 그러나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중의 하나였느니라.

요1203.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감송향(甘松香)(나르도스:나드,감송향)의 연고 한 파운드를 취하여, 예수의 발들에 바르고, 그녀의 머리로써 그분의 발들을 씻으니라. 이에 그 집이 연고의 방향으로 채워지니라.